

# 세상 감쌀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사세요

주제:여래의 사자(使者)를 만나다 6 <광>

일시:12월 1일

장소:광주 동구KT문화센터

강사: 청화 스님(前 조계종 교육원장)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세상이 많이 어둡고 답답합니다. 특히 저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욱 더 농도 짙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빛고을 광주에서 눈부신 빛을 좀 충전하려고 왔습니다. 광주라고 하는 곳은 스쳐가기만 해도 빛이 충전되고 또 다니다가만 하더라도 뻗속 깊이 광주가 가지고 있는 빛이 스며들어서 사람을 맑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깨워주기도 합니다.

오늘 법문 주제는 '시심(詩心)으로 세상을 깨우다'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시심으로 세상을 잠을 어떻게 깨우니까? 요즘 세상의 잠은 철근을 몇 근 넣고 거기에다 콘크리트를 깊게 부어서 콘크리트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쇠망치로 두들겨도 깨닫지 않는데, 시심으로 어떻게 그것을 깨울 수가 있습니까? 오늘은 특히 시 속에 담겨 있는 마음을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우(普愚, 1301~1382) 스님 시를 한 편 살펴 보겠습니다.

눈이 밝으니 보이는 산이 희고  
웃이 깨끗하니 마시는 물이 달더라  
안심이라고 하는 건 다만 이런 것  
어찌 다시 북조 관문에 참여하랴.

이 시에는 아주 편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편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산을 보게 되면 희게 보이고, 또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물이 달더라. 왜 그렇게 됐는가? 산을 바라보는 눈이 맑기 때문이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편안하다고 하는 마음의 토대는 청정한 것입니다. 이른바 맑고 맑아서 욕망에 대한 결백거림이 완전히 정지되었고, 그리고 깨끗하고 깨끗해서 일체 근심, 걱정, 번뇌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산이 희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눈이 하얗게 쌓인 그런 설산이 아닙니다. 희게 보인다고 하는 산은 순수한 마음으로 보는 산을 말합니다. 아주 오롯한 순수한 마음, 그 상태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편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와 같이 사물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 일체 환상이나 망념이라는 것을 털어쓰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편안한 마음은 근심, 걱정, 번뇌가 없으므로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김광섭(金瓊燮, 1906~1977)이라는 시인은 '마음'

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나의 마음은 고요한 물결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구름이 지나가도 그림자 지는 곳  
돌을 던지는 사람  
고기를 낚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  
이리하여 이 물가 외로운 밤이면  
별은 고요히 물 위에 뜨고  
숲은 말없이 물결을 깨우느니  
행어, 백조가 오는 날  
이 물가 어지러운가  
나는 밤마다 꿈을 덮노라.

이 시에는 불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를 보게 되면 이 시는 마음의 속성을 고요한 물결로 상징했습니다. 사실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요한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에 의해서 이미 마음이 물결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마음의 속성인데 거기에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물결이 더 강해지겠지요. 그래서 마음이 산란해질 것이고, 또 직접 와서 바람이 부딪치는 그것에만 고요한 물결이라고 상징한 마음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녜요.

여기에서 보여준 마음은 세 가지 약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내 마음에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돌을 던지는 것은 나를 미워하고, 어떤 공격을 하고, 그래서 어렵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낚시를 드리우고 고기를 낚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이라고 하는 호수에다 낚시를 드리우고 고기를 낚아가는 사람은 나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와 피해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나를 유혹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약조건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서 자칫하게 되면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어떤 사고를 저지르지도 모르고, 내가 사이할 방향을 잃어버릴 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불안한 사람들은 대부분 의존형의 인간들입니다. 지나치게 어떤 관계, 무엇에 의존하고 그러면서 어떤 자기 주체성이라든가, 자아의 강력한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고, 뒤집히고, 깨지고, 상처입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의 로렌스(David Herbert Lawrence, 1885~1930)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인간의 마음'이란 주제로 시를 썼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탐험할 엄두도 못 내는  
또 하나의 우주



청화 스님.

## 편안한 마음에는 근심·걱정·번뇌가 없어 기쁨 주고 고통을 제거해 주는 사랑이 자비

이상한 깃빛의 거리가  
뻑뻑 치는 인간의 마음을  
우리의 장백한 지성으로부터 멀리한다.

먼저 간 사람들은 육지에 아직 닿지 않았다.  
콩고나 아마존보다 더 어두운  
총만과 욕구와 슬픔의 강이 흐르는  
내부의 신비를 낚자도 여차도 아는 이가 없다.

원초적인 신비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시습(金時習, 1435~1493) 선생의 문집을 보게 되면 그 분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한 글자 속에 있으니,  
굳이 고생스럽게  
다른 곳에서 찾지 말라.

이 시에는 알 수 없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가 이 시는 두 가지로 말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 우주처럼 광활해서 도저히 탐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끝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지만 총체적인 집합된 기술이라는 것이 겨우 달나라에 가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광대무변한 우주 속에서 보던 아주 미세한 하나의 면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주와 마찬가지로 너무 광활해서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과 지성 사이에 알 수 없는 깃빛의 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깃빛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지성 사이의 거리를 자꾸 넓혀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으며,

이 시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만사와 흥망을 좌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벌포 장소에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항상 이런 양립된 상황 속에서 결정은 누가 합니까? 옆의 사람이 그렇게 하라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할 것입니다. '내가' 라는 주체가 뭐냐?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이 다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하고 선택할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욕망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망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지혜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게 되면 그것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소월(金素月, 1902~1934)의 시집을 보게 되면 '진달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농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 시를 읽게 되면 바로 넓은 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 보기 역겨워 가는 사람은 나를 인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욕적으로 보고 버리고 가는 사람입니다. 역겹다고 떠나는데 아무 말 없이 다소곳이, 산에 가서 연분홍 진달래꽃 한 아름 따다가 그 사람 가는 길에 뿌려줘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눈물은 왜 흘리지 않습니까? 떠나서 사람 맘 약해질까 봐서, 그러니까 눈물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의 마음이라면 얼마나 넓은 마음입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은 왜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는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는 마음이라면 절대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넓은 마음을 갖고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해 스님 잘 아시죠? 한용운(韓龍雲, 1879~1944) 스님 시집에는 '나룻배와 행인'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行人)

당신은 훔밭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니 옅으니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날아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이 시에서는 깊은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특허출원중**

**여러분의 오늘 운세는?  
백팔번뇌 파자비결에 있소이다**

- 갑골문자는 하늘의 계시로 기록한 점서(占書)이며 한자(漢字)의 모체로 신동력이 있다.
- 갑골문자를 모체로 한 한자(漢字)는 변(邊)과 체(體)가 역(易)을 근본으로 음양오행이 조화되어 철학적 가치가 있다.
- 백팔번뇌 파자비결은 한자의 변(邊)과 체(體)를 음양오행으로 파자(破字)하여 천부의 계시를 표의(表意)하였으므로 미신이 아니다.
- 격암유록 정감록비결도 파자(破字)의 신동력으로 미래의 국운을 예지한 예언서이다.
- 누구나 전문 지식이 없어도 매년 매월 매일 매시의 운세를 108점의 파자비결의 신동력으로 볼 수 있다.

▶ 무료강의내용 ◀  
파자비결 . 생활풍수 (실내인테리어) 월. 수. 금 2개월 무료

서울시 종로구 종로 3가 160 플래티늄 빌딩 403호 송암출판사 강의실  
주문전화 02)2266-8823 H.P 010-7742-3111

**황토삼백초는 튼튼한 체력을 유지하는데 좋습니다**

**신종 플루가 걱정되는 지금  
황토삼백초가 내 곁에 있어 좋다!!**

삼백초는 항암과 성인병에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멸종의 수난을 겪은 국가가 지정한 멸종위기식물 177호입니다.  
(주)천동소리의 국내 최초로 대량 재배에 성공한 귀한 식물입니다.

- ◆ 황토삼백초는 유기농법으로 재배되었습니다.
- ◆ 황토삼백초 제품은 발효대사과정에서 중금속, 독성물질, 잔류농약 등을 무력화시켜 누구나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 ◆ 황토삼백초 제품이나 차를 꾸준히 드시면 힘이 넘칩니다. (차, 환, 추출액, 발효원액 등)

참고문헌 : 삼백초 건강법, 삼백초 효소건강법, 중앙대사전, 당분초, 영남책약국

☎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 본사 (055) 945-2976, 2676, 2679
- 대구지사 010-2531-4785 / 인천지사 011-336-5843
- 서울지사 010-3119-1911

황토삼백초는 (주)천동소리의 등록상표입니다.

**회원 모집**

**세계불교우주대원종단발전총연합회**

- ◆ 회원종단 : 한국불교일대원조계종, 대한불교우주대법왕종

**세계불교우주대원종단발전총연합회는 종단연합단체입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함께하실 회원종단 및 종도를 모십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입회(중)서류

- 입회(중) 신청서 1부
- 사찰 사암 등록증 1부
- 승려(법사) 등록원부 1부
- 사진 3매
- 기타 서류

□ 특 전

각 회원종단의 화합과 교류를 목적으로 하여 사찰 사암 개인 재산은 협회 및 회원 종단에서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세계불교우주대원종단발전총연합회 회장 도원**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64-8  
전화 031)953-7045, 4077 / 011-286-2439